

스리랑카 개발포럼 2005 결과보고

스리랑카 개발포럼이 스리랑카 Kumaratunga 대통령, Rajapakse 수상, 해외 50개국 150여 명의 대표 및 스리랑카의 각계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5월 16~17일간 스리랑카 Kandy에서 개최되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I. 핵심내용

1. 주스리랑카 대사의 발언 요지

- 주스리랑카 대사는 금번 회의 개최가 지난 4개월 여에 걸친 스리랑카의 지진해일피해 구호·복구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함.
- 주스리랑카 대사는 한국 정부는 현금(60만불)과 현물(70만불 상당)을 포함한 130만불의 무상원조를 기히 전달하였고, 향후 3개년에 걸쳐 무상원조 1,370만불을 포함한 3,500만불 규모의 구체적인

사업을 현재 스리랑카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바, 조만간 결정될 것이며 그 외에도 약 1,000여 명으로 구성된 30여 한국의 NGO들이 7백만불 상당의 구호·복구 지원을 기히 시행하였고, 대한적십자사가 향후 3개년에 걸쳐 450만불 상당의 재난구호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리의 지진해일 피해 지원현황을 설명함.

- 주스리랑카 대사는 또한 스리랑카 정부가 북동부 지역의 지진해일피해 추진 공동조정기구(Joint Mechanism)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의 동기구 설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움직임에 동참함.
- 주스리랑카 대사는 스리랑카의 중장기 경제정책틀(framework) 관련,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강력한 리더쉽과 농촌개혁에 있어서 정신적·사회심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5개년간 6~8%의 고율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지향정책을 후퇴시키지 말 것

을 권고함.

2. 스리랑카측 의의

- 스리랑카의 복구·재건 사업 추진 및 경제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들로부터 20억불 지진해일피해 원조 약속액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공동조정기구 추진에 대해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Kumaratunga 대통령의 동 조정기구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3. 원조공여국측 의의

- 국정최고 책임자인 Kumaratunga 대통령으로부터 향후 평화과정의 기초가 될 ‘공동조정기구’ 추진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금번 회의의 최대 수확임.
- 아울러 지진해일피해 복구·재건사업의 ‘시행(implement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리랑카측에 원조자금 배분상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

II. 주요내용

1. 회의 개요

- 1) 동 회의 참석자: 해외 50개국 150여 명
- 정부대표 참석국가: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EU, 캐나다,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23개국

- 국제기구: UN,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DP, UNICEF, OPEC, 아랍경제 개발을 위한 쿠웨이트 펀드(DFAED), 사우디개발펀드(SFD) 등 17개 기관
- 스리랑카측: Kumaratunga 대통령, Rajapakse 수상, Amunugama 재무·기획부장관, Kadirgamar 외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국회의원 등 각계 고위인사 다수 참석

2) 회의 내용

- 개회식
- 주제 1: 지진해일피해 복구·재건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 2: 경제성장 및 빈곤완화(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 3: 평화협상과정 및 향후 방향
(주제발표 및 토론)

2. 회의 결과

1) 개회식 연설요지

가. Chandrika Kumaratunga 대통령

- Kumaratunga 대통령은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LTTE와 협력하여 북동부 지역의 지진해일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공동조정기구(Joint Mechanism)를 진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함.
- Kumaratunga 대통령은 LTTE측이 주권국가의 틀 내에서 싱할라 및 무슬림 커뮤니티와 동일조건으로 일을 하려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다음 수주 내에 공동조정기구 추진에 합

의하는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동 대통령은 스리랑카의 다수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함.
- 동 대통령은 공동조정기구가 평화과정의 직접적인 일환은 아니나 종족갈등의 영구적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주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밝힘.

나. Sarath Amunugama 재무·기획부장관

- 환영사를 통해 금번회의 주제별 요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지진해일피해 복구·재건 관련 향후 3~5년간 약 20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비슷한 액수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약속 받음.
 - 경제성장 및 빈곤완화 관련 향후 5년간 6~8%의 고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전략기업, 인프라, 교육, 보건 및 환경부문 등에 개혁을 추진하고 국내생산성과 투자율을 제고시킬 것임.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평화과정이 필수요건이며 다행히 주요정당들이 예외 없이 전쟁보다는 평화로의 진전 가능성을 믿고 있음.

다. Praful Patel 세계은행 부총재

- 지진해일피해 복구·재건의 향후과제는 ‘시행(implementation)’이라고 전제하고 구체적인 시행 관련 다음 4가지 과제를 지적함.
 - 이재민에 대한 주택공급관련 택지의 확보 및 배분, 완충지대(buffer zone) 기준의 적용문제 등

- 지역주민과의 협의주선

(consultation arrangement)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조정

(coordination)

- 자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책임성 확보문제

- Patel 부총재는 또한 스리랑카의 평화과정 관련 지난 3년간의 ‘정전협정’ 유지를 평가하고 북동부 지역의 지진해일피해 복구·재건 지원을 시행할 공동조정기구(Joint Mechanism) 설치를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2) <주제 1> 지진해일피해 복구·재건

가. 국제사회 지원현황

① 개요

- 외국정부, 국제기구 및 NGO를 포함한 스리랑카에 대한 총지원 약속액은 약 22.3억불이며, 그중 7.4억불은 외국정부, 6.3억불은 국제기구, 8.5억불은 NGO 지원 약속액임.
- 지원약속액의 90% 이상은 무상원조임.

② 외국정부 지원

- 주요 지원국가는 일본(181백만불), 프랑스(104백만불), 캐나다(84백만불), 독일(81백만불), EU(75백만불), 이태리(69백만불), 미국(65백만불), 한국(35백만불), 스페인(25백만불), 인도(23백만불)순임.
- 국가별 중점지원대상 분야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무상원조는 수산, 도로 및 교량, 교육 분야에 유상원조는 중소기업 지원, 전력, 도로 및 교량,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있

음. 프랑스는 도로 및 교량,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 주택건설에, 독일은 주택, 수도공급, 전력에, EU는 도로 및 교량에, 이태리는 교육에, 미국은 도로 및 교량, 주택, 중소기업 지원에 각각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③ 국제기구지원

- 주요 국제기구별 지원약속액은 ADB(157백만불), 세계은행(150백만불), EIB(90백만불), UN 기구(69백만불), IFAD(35백만불), WFP(25백만불), UNICEF(21백만불)순임.
- 중점지원 대상 분야로 ADB는 도로 및 교량, 생계지원,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 수산분야에, 세계은행은 주택, 도로 및 교량,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 생계지원, 교육, 수산분야에, EIB는 중소기업 지원에 각각 중점을 두고 있음.

④ NGO 지원

- NGO들의 지원 약속 액은 2005년 3월 현재 약 8.5억불이며 그 중 약 57백만불을 확약함.

⑤ 채무면제 및 상환유예

- 현재까지 약 42.5백만불의 부채가 면제 또는 상환연기되었으며, 그밖에 한국의 6백만불을 포함하여 금년중 295백만불이 상환 유예될 것으로 예상됨.

나. 지진해일피해 재건사업 시행원칙

- 스리랑카 정부는 모든 지진해일피해 재건사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Guiding Principles)에 기초를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공평성 확보
 - 무차별 원칙(성별, 정치, 종교, 종족등)에 입각한

지원 수요 평가

-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권한 부여
- 관계자간의 협의 및 의사소통 원활화
- 투명성 확보 및 부패방지
- 책임성 확보 및 관리철저
- 불평등 및 미래 취약성 방지
- 조정의 원활화 및 효율성 제고

다. 토론 요지

- 주스리랑카 대사는 금번 회의 개최가 지난 4개월여에 걸친 스리랑카의 지진해일피해 구호·복구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함.
- 주스리랑카 대사는 한국 정부는 현금(60만불)과 현물(70만불 상당)을 포함한 130만불의 무상원조를 기히 전달하였고, 향후 3개년에 걸쳐 무상원조 1,370만불을 포함한 3,500만불 규모의 구체적인 사업을 현재 스리랑카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바, 조만간 결정될 것이며 그 외에도 약 1,000여 명으로 구성된 30여 한국의 NGO들이 7백만불 상당의 구호·복구 지원을 기히 시행하였고, 대한적십자사가 향후 3개년에 걸쳐 450만불 상당의 재난구호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리의 지진해일피해 지원현황을 설명함.
- 주스리랑카 대사는 또한 스리랑카 정부가 북동부 지역의 지진해일피해 추진 공동조정기구(Joint Mechanism)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의 동기부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움직임에 동참함.

- 대부분의 원조공여국 대표들은 북동부지역 지진 해일피해 복구·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조정 기구의 설치가 공평한 지원배분 및 신뢰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스리랑카 정부의 추진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
- 원조공여국 대표들은 또한 복구재건사업에 있어서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참여자들간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정의 원활화, 무차별 지원, 지방차원의 사업시행능력 구축 등이 필요함을 지적함.
- 그밖에 EU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완충지대’ 설정기준의 적용, 피해복구 및 재건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영향 등에 관심을 나타냄.

3) <주제 2> 경제성장과 빈곤완화

가. 경제성장 및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틀(Framework)

- 경제성장을 목표를 현재의 5% 수준에서 6~8%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지역적 불균형 성장 완화 및 빈곤층을 위한 성장전략 추진을 통한 개발효과의 확산
- 투자 비중을 GDP의 30% 이상 제고시키기 위해 국제경쟁력 향상 및 투자환경 개선
- 국가의 대외보유자산 확충
- 상기 중장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부문에 대한 개혁 실시

나. 토론 요지

- 주스리랑카 대사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강력한 정치적 리

더십과 새마을운동의 예를 들어 농촌개혁에 있어서 정신적·사회심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5개년간 6~8%의 고율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지향정책을 후퇴시키지 말 것을 권고함.

- 원조공여국 대표들은 중장기 종합적인 정책틀(Framework)을 설정한 데 대해 평가하는 한편, 개혁의 추진방법, 시행에 대한 신뢰성 제고, 정책의 일관성 확보 등의 중요성을 지적함.

4) <주제 3> 평화협상 과정 및 향후 방향

가. 공동조정기구 추진 의의

- 공동조정기구 설치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6%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함.
 - 응답자 소속별 지지율: 싱할라 50.9%, 타밀 93.3%, 무슬림 72.9%, LTTE 100%
- 현재 논의중인 공동조정기구(안)은 적용지역 및 기간상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지진해일피해 복구·재건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기구에 지나지 않을 뿐 평화협상 과정의 일환이 아님.
- LTTE측이 공동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향후 동 조직을 제도정치권으로 흡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토론 요지

- 원조공여국 대표들은 대체적으로 공동조정기구 설치 추진에 관한 Kumaratunga 대통령의 의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

Ⅲ. 관찰 및 평가

- 현재까지는 해외에서 세계은행 주관 하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스리랑카가 피동적인 입장에서 참가했으나 금번 회의는 스리랑카 국내의 전통적인 옛 고도에서 스리랑카 주관 하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스리랑카가 자주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주도하였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킨.
- Kumaratunga 대통령은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장시간 차분하게 지진해일피해 복구·재건 사업의 과제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북동부지역의 재건사업 시행을 위한 공동조정기구 추진 배경, 설치안 및 본인의 강한 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회의 참석 대표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이는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약속액 이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공동조정기구 추진에 대해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Kumaratunga 대통령의 동 조정기구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됨.
- 원 조 공 여 국 측 은 국 정 최 고 책 임 자 인 Kumaratunga 대통령으로부터 향후 평화과정의 기초가 될 ‘공동조정기구’ 추진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지진해일피해 복구·재건사업 시행과정상 원조자금 배분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에 대한 스리랑카의 관심을 환기시킴.
- 우리 대표단은 토론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정부 및 민간단체들의 지진해일피해 지원 현황과 지원정책 방향을 소상하게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제고하고 스리랑카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함.

[자료:주스리랑카 대사관]